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7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중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2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2-6단계 국산 항만장비 제작 착수
- ◆ 인천항, 동남아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
- ◆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 부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교역 회복에 동력 제공
- ◆ 美 롱비치항,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
- ◆ 파나마운하, 선박흘수 제한 완화 및 일일 통행량 상향 조정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글로벌 해운산업 위기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 ◆ 시멘트산업, 수소를 활용한 탄소배출 감소 노력
- ◆ 석유화학업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 2-6단계 국산 항만장비 제작 착수¹⁾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서컨테이너 2-5단계에 이어 2-6단계에서 사용할 국산 항만장비 제작 및 설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임
 - 지난 5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를 통해 컨테이너 크레인인 HD현대삼호(주), 트랜스 크레인(주)HJ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함
 - 해당 업체는 지난 2-5단계 항만장비를 제작 및 설치했던 제작업체로, 전회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 2-6단계 부두 운영 시점인 '27년 9월에 맞춰 동 장비사업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추진하여 '27년 6월 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2-5단계에 도입된 국산 하역장비



트랜스퍼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자료 :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368>(2024.07.19.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7.0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368>(2024.07.19. 검색)

2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터미널 대상 전자인수도증 전면 도입²⁾

 BPA는 7월 1일부터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전자인수도증(e-slip)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힘

- BPA는 트럭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존 항만 출입 시 발급하던 종이 인수도증을 모바일 앱(올컨e)을 통한 전자인수도증 체제로 전환함
- 지난해 12월 중순에 해당 서비스를 배포한 이후 시범적으로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에 적용하여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앱을 개선함
- 현재 앱 배포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물동량의 약 90%가 전자인수도증을 활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약 14,000여 명의 트럭기사가 해당 앱을 사용 중에 있음

 7월 1일부터 전자인수도증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 트럭 운전자의 하차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임

- 전자인수도증에는 실시간 상하차 작업 위치, 컨테이너 검사 및 세척 등 작업 상황 등이 제공되며, 음성으로도 서비스를 지원해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현함
- 또한 연간 약 2천만 장 이상 발급되던 종이 인수도증의 발급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7.0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2357>(2024.07.19.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 동남아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³⁾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7월 8일, 인천항과 동남아시아 주요 항만을 잇는 신규 항로 KCM4가 운영된다고 밝힘

- 고려해운, 남성해운, ONE, PIL이 공동 운영하는 KCM4(Korea China Malaysia) 서비스는 2,500~2,700TEU급 선박 4척이 투입되는 주 1항차 서비스임
- 인천항~칭다오항~상하이항~싱가포르항~포트클랑항~호치민항~서커우항~부산항을 기항하는 신규노선 개설에 따라 연간 6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이 예상됨
- 동남아시아와 남중국 기항지 항로 연결을 통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② IPA, 인천항 벌크화물 유치 계획 추진⁴⁾

📍 IPA는 인천항 벌크화물 유치를 위해 포트세일즈, 하역사 지원 확대, 물류부지 공급 등 관련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IPA는 인천항 벌크화물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벌크부두 하역사와 화물유치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잠재고객 발굴부터 영업·지원까지 공동 화물유치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또한 하역사에 제공 중인 하역·안전장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내항 인근 유희부지 2개소를 물류 용도로 신규 공급할 계획임
- 한편, IPA는 올해 하반기 중 내항 인근의 유희부지 2개소를 물류 용도로 신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내항을 포함한 인천항 벌크화물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인천항 벌크부두 운영사를 만나 벌크부두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IPA는 적극적인 벌크화물 유치 마케팅과 관련 업·단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인천항 내항과 북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7.0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7984&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4.07.19.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7.0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7988&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4.07.19. 검색)

3) 여수·광양항

1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 부지, GS칼텍스(주)와 토지매매계약 체결⁵⁾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1단계 A2 부지(약 25만 m²)의 분양 우선협상대상자인 GS칼텍스(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
- GS칼텍스(주)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약 3년간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 수소 생산·발전 사업,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출에 필요한 설비 공장 등을 설치할 예정임
 - 이를 통해 광양항의 신규 물동량 창출, 탄소 감축, 취업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YGPA는 앞으로도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광양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6.28.),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759&category=\(2024.07.19.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759&category=(2024.07.19.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울산항 저속운항 참여 우수업체 4개사 시상⁶⁾

● UPA는 '23년도 울산항 저속운항 참여 우수 선사 2개사, 우수 선사대리점 2개사 등 총 4개사를 선정하여 시상함

- UPA는 '19년부터 울산항에서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는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23년부터는 저속운항 참여율이 낮은 액체화물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으며, 참여율이 13%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본격 도입해 연중 운영하고 있음
- 선박 저속운항 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의 배출이 약 7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23년 울산항에서 저속 운항한 선박은 약 2,300척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UPA, IoT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항만 도약⁷⁾

● UPA는 울산항 내 'IoT 기반 스마트 전력계량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함

- '스마트 전력계량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 항만구현을 위해 '23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2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항의 전력사용량 측정을 원격검침으로 개선함
- UPA는 그동안 담당자가 매월 2~3회 울산항과 외곽 방파제 등에서 운영 중인 전기설비를 직접 방문해 검침한 뒤 사용자에게 전력 사용료를 부과해 왔음
- 이번 사업을 통해 UPA는 한전KDN과 협업하여 공사 내 IoT 기반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78곳에 스마트 전력 계량기를 설치함에 따라 담당자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
- 본 사업으로 원격검침 외에도 전기설비 이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사전 조치까지 가능해졌으며, 행정 업무효율 개선, 수기 검침에 따른 고정지출 비용 절감, 항만 내 전기안전사고 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뉴스1(2024.07.05.), [https://www.news1.kr/local/ulsan/5470352\(2024.07.19. 검색\)](https://www.news1.kr/local/ulsan/5470352(2024.07.19. 검색))

7) 경상일보(2024.07.09.),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447\(2024.07.19. 검색\)](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447(2024.07.19.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 선정,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⁸⁾

-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이 국가가 선정한 인천항시설 관리센터 (IPFC)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함
 -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지난 1월 '2024~2026년도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공고했으며, 3월 IPFC를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함
 -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평택항정책개발협의회는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이 기존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된 '01년부터 23년간 운영해 온 평택시에서 IPFC로 이관되는 것에 반발함
 - 다만, 평택시는 기존의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방청 설립 전이라 평택시의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였으나, 이는 전국에서 유일했던 사례였으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어 정부가 운영사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포항항

①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 개수 완료 및 조업 재개⁹⁾

- 조강생산을 중단한 4개월을 포함해 총 1년 4개월이 소요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4고로의 3차 개수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6월 27일 본격적인 고로 재가동에 들어감
 - 4고로는 지난 '81년 준공돼 가동을 시작한 이후, '94년과 '10년 두 차례의 개수를 거치며 조업을 이어왔고, 준공 이후 누적 1억 5천만 톤의 쇳물을 생산해 옴
 - 이번 3차 개수는 고로 철판 두께 확대를 통한 내구성과 안정성 강화, 고로 냉각 방식 개선을 통한 설비 효율 증대, 딥러닝으로 고로가 스스로 조업 결과를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고로 시스템 적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에 역점을 둠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8) 경기신문(2024.07.08.),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00402>(2024.07.19. 검색)

9) 페로타임즈(2024.06.27.),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48>(2024.07.17.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24년 상반기 연안 및 국제여객선 이용객 감소¹⁰⁾

-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청)은 강원도 연안여객선과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24년 상반기 1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13만 6천 명) 대비 22.8% 감소했다고 밝힘
 - 올해 상반기 묵호-울릉 및 강릉-울릉 항로를 이용한 여객 수는 9만 2천 명으로 전년 12만 1천 명 대비 24.2%가 감소함
 - 이는 울릉도 여행객들이 기상 상황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포항·후포의 대형 여객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강원권 연안여객선 이용객 감소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상반기 울릉행 전체 여객 수는 총 59만 1천 명으로, 포항지역 이용객(50만 명)은 전체 여객 수의 84.5%를 차지하는 반면, 강원지역 이용객은 15.5%에 불과함
-  국제여객선 이용객 수도 올 상반기 1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1만 6천 명) 대비 12.1%가 감소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은 여전히 없는 상태인데, 이전 항공편은 두바이 등 먼 거리를 경유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유 항공편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해-블라디보스토크 항로의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러시아인이 23.8% 감소했고, 하반기에도 러시아인 이용객 수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엔화 약세로 일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턴드림호가 8월부터 동해-일본 사카이미나토 항로를 본격 운항하면 러시아 이용객 감소분을 상쇄하여 연간 수송 실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러시아 수출 위주인 국제여객선의 화물 수송은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천 톤보다 58.2%나 감소,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 품목 확대 및 러시아 수출제한이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향후 화물수송량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7.08.),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05355>(2024.07.12. 검색)

8) 목포항

1 제1회 목포항 발전협의회 개최¹¹⁾

전라남도는 지난 6월 27일, 목포항 발전을 위한 각종 현황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제1회 목포항 발전협의회를 개최함

- 해당 발전협의회는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구성하여 12월에 발대함
- 금번 제1회 협의회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항만물류협회, 목포신항만운영(주), 씨월드고속훼리(주) 등 목포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함
- 목포시는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목포항만물류협회는 목포신항 자동차부두에 한시적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 또한, 씨월드고속훼리(주)는 태풍복상에 따른 선박대피 협의회 구성 시 선사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목포신항만(주)에서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을 건의함

한편,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제도·규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대산항

1 관세청 대산지원센터, 평택직할세관 편입¹²⁾¹³⁾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 직제가 7월 2일 개정되면서 대산지원센터가 천안세관에서 평택직할세관으로 편입됨

-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 일부이며, 서산시·홍성군 등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 현대토탈에너지 등의 석유화학산업과 동희오토, 현대트랜시스 등 자동차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음
- 대산지원센터는 '23년 기준 약 5조 2천억 원의 세수를 징수했으며, 평택세관은 올해 약 13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1) 전라남도청 보도자료(2024.06.27.), <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6324&menuId=jeonnam0202000000&boardId=M7116>(2024.07.19. 검색)

12) 한국세정신문(2024.07.02.),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5279>(2024.07.19. 검색)

13) 뉴스핌(2024.07.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02000916>(2024.07.19. 검색)

10) 군산항

① 국토교통부, 제7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지정¹⁴⁾

- 국토교통부는 군산항에서 전주 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 복로 등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데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38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금회 신규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 총 61.3km 구간으로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해 특수화물을 운송하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임

제7차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군산~전주 구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06.26.),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epage=1&id=95089899(2024.07.19. 검색)

11) 마산항

1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행정심판 기각¹⁵⁾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휴벡스피앤디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함

* 휴벡스피앤디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음에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함

- 행정심판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매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 창원시는 '15년부터 '21년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연거푸 실패했고, '21년 10월 5차 공모 끝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양측은 '21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2년간 10차례 이상 협상을 이어갔으나, 주요 쟁점 사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창원시는 '23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함
-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행정소송은 현재 심리 중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연합뉴스(2024.06.17.),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063000052>(2024.07.19.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24년 6월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 감소는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¹⁶⁾

6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 1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예측치를 웃돌았으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대조를 나타냄

-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반면, 수입은 2.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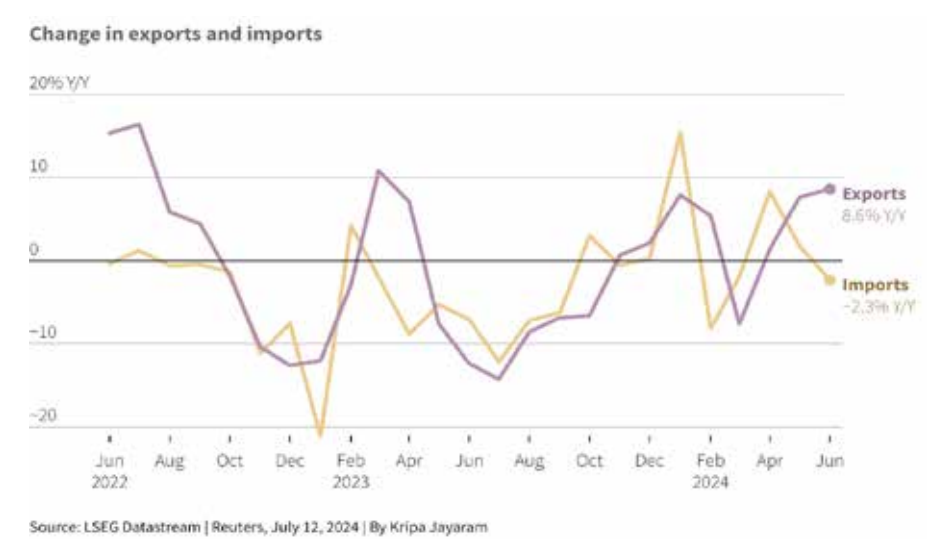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의 관세 인상 정책을 앞두고 주문을 앞당기면서 수출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하여 미국은 관세 100% 인상, EU도 최대 37.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터키 역시 오는 7월 7일부터 40%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함
- 또한, 인도네시아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섬유 제품에 대해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인도는 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행태가 강화되고 있음
-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최근 몇 달 동안 지속된 강한 수출 증가세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악화 및 선거 등이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6) REUTERS(2024.07.12.),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rise-falling-imports-dampen-june-trade-data-2024-07-12/> (2024.07.19. 검색)

한편, 수입의 경우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및 임금에 대한 우려로 국내 수요가 부진하면서 더 많은 정부 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s-rise-falling-imports-dampen-june-trade-data-2024-07-12/>
(2024.07.19.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교역 회복에 동력 제공¹⁷⁾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친환경 항만 구축을 위해 스마트 운송 및 물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텐진항은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통합한 스마트 항만 건설을 통해 세계 최초의 지능형 제로 탄소 터미널로 변모함
 - 이를 통해 텐진항은 단일 컨테리크레인의 운영 효율성을 40% 이상 증가시키고 인건비를 60% 절감함
 - 텐진항 외에도 Ningbo-Zhoushan 항 역시 지능형 항만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글로벌 해운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파나마 운하 혼란, 홍해 리스크 등으로 광범위한 혼란을 겪으면서 항만 운영에 복잡성을 더했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중국은 더 강력하고 유연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기술 혁신, 운송 효율성 향상, 글로벌 협력 증대 등을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관련 신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음
- 중국 교통운송협회는 중국 국외 무역의 약 90% 이상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어 스마트 항만의 발전은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등 무역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신화통신(2024.07.13.), <https://english.news.cn/20240713/01f96d2abd9d4441abd53121d91ddd84/c.html>(2024.07.19. 검색)

2) 아시아



1 체선 심화로 싱가포르항에 입항 예정이던 컨테이너 선박, 말레이시아 항만들로 대체 기항¹⁸⁾

- 세계 최대 환적항인 싱가포르항에서 최근 컨테이너 선박이 3~5일 정도 외항에서 대기하는 등 체선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컨테이너 선박들이 싱가포르항과 가까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항으로 대체 기항하여 포트클랑항도 체선이 심화됨
- 야드 내 화물적체도 심화되어 항만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항은 운영을 중지했던 Tanjong Pagar, Keppel의 일부 터미널 운영을 재개하였음**
 - 이밖에 '24년 연내에 운영 개시할 예정이었던 TUAS Port의 3개 터미널 중 1개 터미널을 7월부터 조기 운영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일본, 캄보디아 항만 물류거점으로 개발 지원¹⁹⁾²⁰⁾

- 일본과 캄보디아는 항만 인프라와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
 - 최근 일본의 외무상과 캄보디아의 총리는 시아누크빌항* 확장 건설의 설계 및 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인프라 및 해양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 시아누크빌항은 캄보디아 최대 항만이자 유일한 국제 및 상업항으로서, 60년대 프랑스 원조로 건설되었으며, 이후 항만 개발 및 확장 등은 일본 차관 및 JICA(일본 개발도상국 협력기구)의 투자로 진행됨
 - 일본은 캄보디아와의 해양 연결성 강화를 위한 허브 및 물류 거점으로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을 제안함
 - 또한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 투자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약속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18) The Economic Times(2024.07.10.),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small-biz/trade/exports/insights/singapore-container-ship-logjam-spills-over-to-malaysian-port/articleshow/111622025.cms?from=mdr>(2024.07.19. 검색)

19) FIBRE2FASHION(2024.07.08.), <https://www.fibre2fashion.com/news/textile-news/japan-to-help-cambodia-develop-deep-sea-port-as-logistics-hub-296530-newsdetails.htm>(2024.07.22. 검색)

20) 한국해운신문(2023.05.10.),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85>(2024.07.22. 검색)

3 인도, 바다반(Vadhavan) 거대항만 건설 프로젝트 추진²¹⁾²²⁾

인도 정부는 뭄바이에서 북쪽으로 약 120마일 떨어진 마하라슈트라주 바다반(Vadavhan)에 글로벌 허브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함

- 해당 프로젝트는 자와할랄네루항만청(JNPA)과 마하라슈트라 해상위원회(MMB)가 각각 74%와 26%씩 지분을 투자한 특수목적법인 바다반 포트 프로젝트 리미티드(VPPL)가 맡을 예정임
-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토지 취득 비용을 포함하여 약 91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건설 공사는 총 2단계로 추진되는데 그 중 1단계는 '29년 완공될 예정임
- 바다반 항만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심 20m의 9개 컨테이너 터미널과 석유와 자동차, 기타 화물의 수입을 위한 벌크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며, 연간 2,320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해 2억 9,8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1) Port Technology(2024.06.2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ndia-authorises-9-billion-port-development-project/>(2024.07.22. 검색)

22) 해양통신(2024.06.24.), <http://www.oceanpress.co.kr/news/article.html?no=24758>(2024.07.22. 검색)

3) 미주



① 롱비치항, 3억 달러 지원받아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²³⁾

🔗 롱비치항은 ‘미국의 녹색 관문(America’s Green Gateway)’ 구축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2억 8,300만 달러를 지원받음

- 이 프로젝트는 철도를 통해 화물 처리능력을 증가시키고 전국 공급망의 물류를 가속화하며,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원금은 미 교통부의 메가 그랜트 프로그램(Mega Grant Program)을 통해 항구의 B부두(Pier B) 온-도크(on-dock) 철도 지원시설에 할당됨

🔗 B부두의 온-도크 철도 지원시설은 항구의 화물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 새로운 시설 개장 시, 화물트럭 대신 소형 열차가 컨테이너를 옮기게 되고 소형 열차들이 시설에 모여 전체규모의 열차로 결합될 예정임
- B부두 프로젝트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으로부터 ’23년 7월에 1억 5,8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했으며, 연방 정부는 이미 약 1억 5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
- 이 프로젝트는 ’3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처리능력은 기존 150만 TEU에서 470만 TEU로 향상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미국항만당국협회(AAPA),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STS 크레인에 대한 세금 철회 요청²⁴⁾

🔗 AAPA는 중국에서 제작한 STS 크레인에 대한 25% 세금의 철회를 요청함

- AAPA는 중요 항만 장비의 지역 제조를 증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나, 현재 대형 크레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
- 미국내 대안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는 항만당 항만건설 비용을 수백만 달러 증가시키게 되며, 항만당국은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음
- AAPA에 따르면 최소 7개 항만에서 중국 제조업체에 STS 크레인 35대를 주문했으며,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항구의 경우 25%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추가되는 지출이 최소 1억 3,100만 달러 발생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Port Technology(2024.06.1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receives-300-million-for-green-gateway/>(2024.07.22. 검색)

24) Port Technology(2024.07.02.),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aapa-advises-ustr-to-revoke-tax-on-chinese-sts-cranes/>(2024.07.22. 검색)

3 파나마운하, 선박흘수 제한 완화 및 일일 통행량 상향 조정²⁵⁾

▶ 파나마운하청은 6월 27일에 최대 허가 흘수선을 46피트에서 47피트(14.33m)로, 7월 11일에는 48피트(14.63m)로 상향 조정함

- 네오파나막스(Neopanamax) 갑문은 8월 5일부터 매일 총 운송 횟수가 35회로 늘어날 예정임
- 네오파나막스급 갑문의 일일 통행량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계획을 상향하여 7월 11일부터 32회에서 33회로 늘리고, 7월 22일부터는 34회로 늘릴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Port Technology(2024.07.0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increases-draft-and-daily-transits-2/>(2024.07.22. 검색)

4) 유럽



1 독일 항만 파업, 네 번째 협상 라운드 진행²⁶⁾

- 7월 16일 브레멘에서 열린 네 번째 협상 라운드에서 독일항만기업중앙협회(ZDS)는 독일 노동조합인 베르디(Ver.di)에 최종 제안을 제시하여, 이후 귀추가 주목됨
- 7월 독일에서는 함부르크, 브레멘,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 엠덴, 브라케항에서 경고 파업이 진행됨
- ZDS는 최종 제안으로 두 가지 변형 안을 제시했으며, 첫 번째 제안은 협약 기간 12개월에 인플레이션 보상 프리미엄 1,000유로 및 시간당 임금 0.95유로 인상, 두 번째 제안은 협약 기간 16개월에 인플레이션 보상 프리미엄 1,400유로 및 시간당 임금 1.15유로 인상이며, 교대 수당 증가와 연간 휴가비 증가는 두 안에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음
- 해당 제안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비하면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이나, 교대 근무로 인한 특별 스트레스 보상 등 일부 항목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베르디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8월 22~23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회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6) Port Technology(2024.07.1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employers-levy-final-offer-in-wake-of-german-port-strikes/>(2024.07.17. 검색)

2 X-Press Feeders, 그린 메탄올 컨테이너 피더 네트워크 구축²⁷⁾

 세계적 피더 서비스 제공 기업인 X-Press Feeders는 로테르담에서 출발하여 핀란드와 발트해로 향하는 두 개의 서비스로 유럽 최초의 그린 메탄올 컨테이너 피더 네트워크를 구축함

- 서비스 이름은 그린 핀란드(GFX)와 그린 발틱(GBX)으로, GFX는 로테르담-앤티워프 브뤼헤-헬싱키-탈린-하미나코트카-로테르담, GBX는 로테르담-앤티워프 브뤼헤-클라이페다-리가-로테르담으로 구성됨
- '24년 5월 첫 메탄올 연료 보급 및 화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 Eco Maestro를 포함하여 총 14척의 듀얼 연료 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며, '23년 7월 로테르담에서 친환경 연료 생산 기업인 OCI Global과 그린 메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함
- 그린 메탄올 사용으로 최대 65%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린 메탄올은 재생 가능한 유기 폐기물 및 잔여물 등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이 점은 ISCC(국제 지속 가능성 및 탄소 인증) 표준에 따라 유럽에서 인증함
- 앞서 X-Press Feeders는 Evergreen과 그린 피더 선박을 활용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해운 계획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유럽 북부에 첫 번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힘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Port Technology(2024.07.10.),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x-press-feeders-launches-green-methanol-feeder-network>(2024.07.17.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정부, 저탄소 제품의 ‘수출 우위’를 위한 증명 제도 도입²⁸⁾

❖ 호주 정부는 제품의 저탄소 배출 증명을 위한 제도가 수출업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장관 제니 맥앨리스터는 지난 7월 16일 산업 회의에서 이 제도를 발표했으며 기업들이 제품의 배출 강도를 증명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정부가 지원하는 탄소 배출 강도 인증을 통해 호주 기업들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 제도는 '25년 재생 가능 수소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녹색 철강 및 알루미늄, 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로 확장될 예정임

❖ 22.7억 달러 규모의 미래 호주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인 이 제도는 제품의 생산 및 운송과 관련된 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됨

-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재생 에너지 사용을 증명하여 5월 예산에 발표된 6.7억 달러 규모의 수소 생산 세액 공제 자격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가 넷제로(Net Zero)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배출 증명은 석탄이나 가스 기반 전기에 의존하는 수소나 암모니아 생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관세나 무역 금지를 피할 수 있게 해줌

❖ 호주 청정 에너지 정상 회의 첫날과 함께 호주-인도 재생 에너지 대화도 개최됨

- 인도는 '30년까지 50%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는 넷제로(Net Zero) 목표를 향한 공동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은 양국의 정책, 역량 및 무역과 투자 기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호주-인도 연구소 CEO 리사 싱은 이번 대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Shepparton News(2024.07.16.), [https://www.sheppnews.com.au/national/proof-scheme-an-export-edge-for-low-emission-products/\(2024.07.17. 검색\)](https://www.sheppnews.com.au/national/proof-scheme-an-export-edge-for-low-emission-products/(2024.07.17. 검색))

6) 아프리카



1 더반항, 정박 대기 시간 189시간 기록²⁹⁾

◆ 더반항의 컨테이너 터미널(DCT)은 컨테이너 처리량에 비해 스트래틀 캐리어의 수가 현저히 부족해 선박 대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남아프리카 화물 운송업 협회(Saaff)와 비즈니스 유니티 SA(Busa)가 수집한 최신 처리량 데이터에 따르면, 7월 11일 DCT Pier 2에는 50대의 스트래틀 캐리어가 운영 중임
- 이는 지난 6월 더반항의 생산성이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 컨테이너 핸들링 장비 부족을 지적한 지 일주일 만에 운영 중인 스트래틀 캐리어의 수가 감소함
- 필요한 67대 중 55대만 가동 중이었으며, 16대의 선박-육상(STS) 크레인 중 7대만 작동하고 있음
- 현재는 STS 크레인의 운영이 일부 개선되어 South Quay에는 2대, East Quay에는 3대, North Quay에는 5대의 크레인이 운영 중임이지만 컨테이너 선박들은 정박지에서 7일 이상(189시간) 대기 중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Southern Africa's freight News(2024.07.12.), <https://www.freightnews.co.za/article/vessels-wait-189-hours-anchorage-port-durban>(2024.07.13.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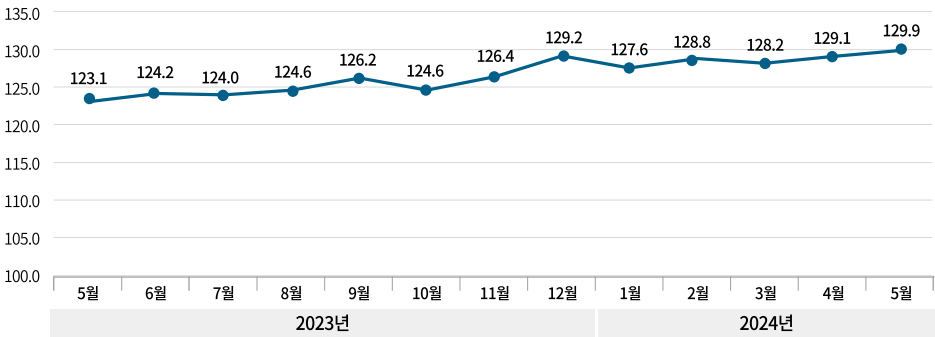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4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5.5% 증가³⁰⁾

- ’24년 5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129.9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은 142.9p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0.2% 소폭 하락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5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전년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하면서 전체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증가세를 견인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3.1	124.2	124.0	124.6	126.2	124.6	126.4	129.2	127.6	128.8	128.2	129.1	129.9	0.6	5.5
China Index	137.0	139.3	137.6	139.1	138.7	135.7	138.4	145.4	142.9	139.3	139.4	143.2	142.9	-0.2	4.3
North Range Index	105.6	106.7	107.1	104.7	103.2	103.4	101.3	101.8	97.5	110.9	113	110.4	111.9	1.4	6.0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524\(2024.07.19.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524(2024.07.19.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ISL(2024.06.26.),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524\(2024.07.19.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524(2024.07.19. 검색))

2 머스크, 홍해 사태에 따른 글로벌 네트워크 영향 경고³¹⁾

 머스크는 홍해 사태에 따른 컨테이너 해운 차질이 극동과 유럽 간의 무역루트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긴 항해 시간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차질의 연쇄적 영향으로 주요 영향을 받은 항로를 넘어 극동아시아, 서중앙 아시아, 유럽과의 무역에 필수적인 대체 항로와 환적 허브에서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음
- 싱가포르, 호주, 상하이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항만들이 홍해 사태에서 비롯된 파급 효과로 인해 경로 변경 등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연을 겪고 있다고 밝힘
- 특히, 머스크는 홍해 차질로 인한 장비 부족과 용량 제약으로 동남아시아 허브에서 혼잡이 발생하여 오세아니아 네트워크가 타격을 받았다고 밝힘

 머스크는 홍해 지역에서의 차질이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강조하면서 선사들은 운임 상승과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Reuters(2024.07.17.),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disruptions-container-shipping-via-red-sea-have-expanded-maersk-says-2024-07-17/>
(2024.07.19. 검색)

3 글로벌 해운 산업 위기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³²⁾

- '23년 말 발생한 홍해 사태가 컨테이너 여유 용량을 흡수하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였으며 주요 환적 항만의 혼잡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해운 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5월 컨테이너 운임은 '23년 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FourKites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싱가포르항에서 지연된 선적은 전년 대비 44%로 증가하였으며 6월 25일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7% 증가함
 -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연에 대해 익숙해진 점이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동부 및 걸프 항만의 파업 가능성 역시 업체들의 선주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상황을 악화시킴
- 한편, 온라인 포워딩 서비스 제공기업인 Freightos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하반기 몇 달 동안은 이러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최악의 시나리오는 홍해 사태의 지속으로 혼잡이 증가하고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하면서 컨테이너 효율이 팬데믹 동안의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최상의 시나리오는 후티 공격의 중단으로 선박들이 기존 항해 일정으로 복귀하면서 운임이 안정화되고 신규 컨테이너선의 투입 등으로 컨테이너 운임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약 1,000달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홍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운임이 10,000달러 수준에 도달하지만 현재의 강한 수요가 악화되면서 연말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Bloomberg(2024.07.02.),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4-07-02/supply-chain-latest-peak-shipping-season-outlook>(2024.07.19.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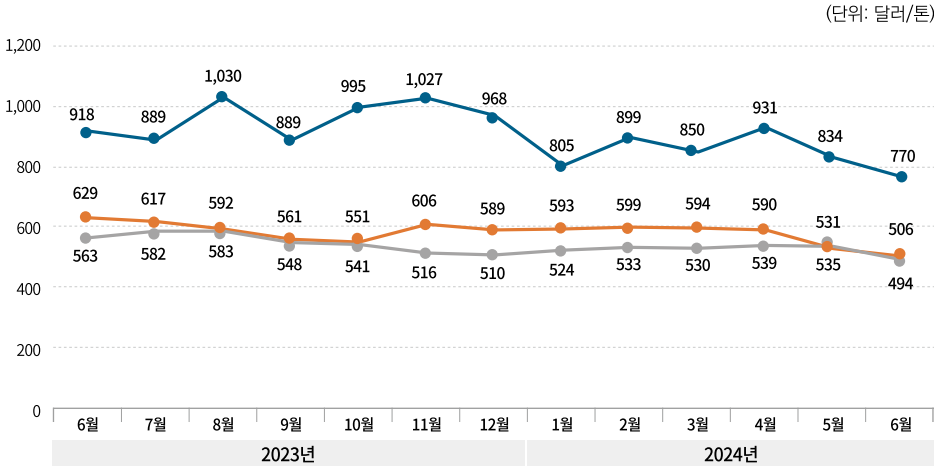


1 '24년 6월 옥수수 및 콩 품종(밀 제외)의 식용과 사료용 수입단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³³⁾

- 6월 밀 제분 수입단가는 323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사료용 밀 수입단가도 전월 대비 소폭(0.4%) 증가한 277달러/톤을 기록함
-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2% 감소한 255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식용 콩의 수입 가격도 전월 대비 7.7% 하락한 770달러/톤을 기록함
- 사료용 옥수수(253달러/톤)와 대두박(494달러/톤)의 수입단가도 전월 대비 각각 2.7%, 7.7% 감소하였음

콩 곡종별 수입단가 추이

● 콩 식용
● 콩 채유용
● 콩 대두박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제분	390	379	355	347	324	336	328	341	335	334	331	319	323	1.3	-17.2
	사료용	353	348	342	329	308	292	277	274	274	275	273	276	277	0.4	-21.5
옥수수	제분	339	325	300	305	289	276	276	292	267	272	276	258	255	-1.2	-24.8
	사료용	336	332	321	305	284	263	252	258	258	257	258	260	253	-2.7	-24.7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2024.07.0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798/page/1\(2024.07.19.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798/page/1(2024.07.19. 검색))

② 중국, 낮은 가격과 트럼프 당선 확률 증가로 대두 수입 기록 경신³⁴⁾

- ▶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 확률 증가로 중국과 미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두 수입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7월 기록적인 양의 대두 수입 실적이 예상됨
- ▶ 유지종자 순수입국인 중국이 유지종자 최대 공급국인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관련 품목인 대두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음
 - 유지종자는 식물성 유지(vegetable oil)를 추출하는 종자(Oil seeds)로서 대두, 유채, 팜, 면실, 올리브 등이 있음
 - 국제 곡물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최근 기존 수입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두 수입을 예약했다고 밝힘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뉴스/ 브리핑(2024.07.03.),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800/page/2\(2024.07.19.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800/page/2(2024.07.19.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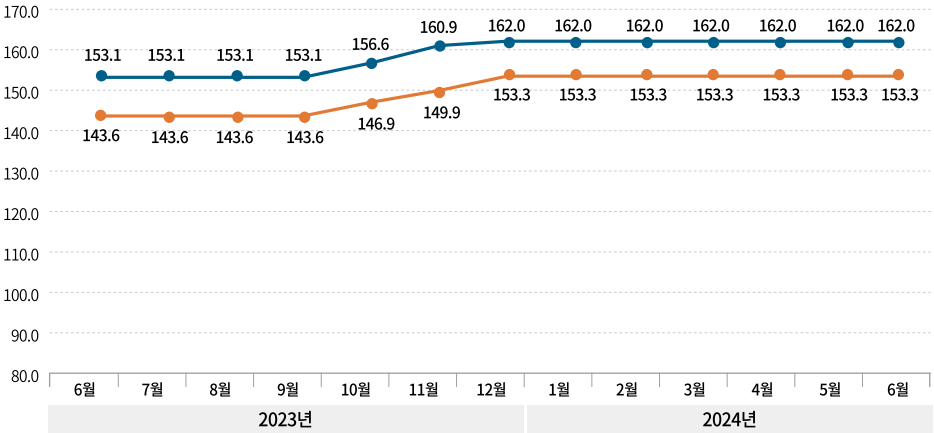
1 6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4년 6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6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53.1	153.1	153.1	153.1	156.6	160.9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0.0	5.8
고로슬래그	143.6	143.6	143.6	143.6	146.9	149.9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7.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산업,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 감소 노력³⁵⁾

시멘트 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 연료와 폐기물 혼합재 활용이 시도되고 있음

- 시멘트 산업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공정은 클링커 생산, 클링커는 석회석을 1,450 °C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해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 이에 시멘트 업계는 클링커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혼합재를 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함
- 예를 들어, 그리스의 타이탄은 페콘크리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간 8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으며, 스위스의 홀심은 페콘크리트와 폐벽돌 등의 건축폐기물을 사용해 클링커 비중을 줄였음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도입되고 있음

-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시멘트는 석탄 대신 수소 기반 연료 혼합물을 사용해 클링커를 생산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시멘타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수소를 사용해 무탄소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 타이탄은 그린수소를 소성로 열원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계획임

대한민국 정부는 클링커 생산 소성로의 연료를 친환경 폐합성수지와 수소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소 에너지 기반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삼표시멘트는 폐플라스틱을 유연탄 대체 연료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제조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 업계는 탄소 감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멘트 업계가 대체 원료와 연료를 도입하는 등 저탄소 시멘트 생산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로서는 순환자원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월간수소경제(2024.06.25.), <https://www.h2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72024.07.1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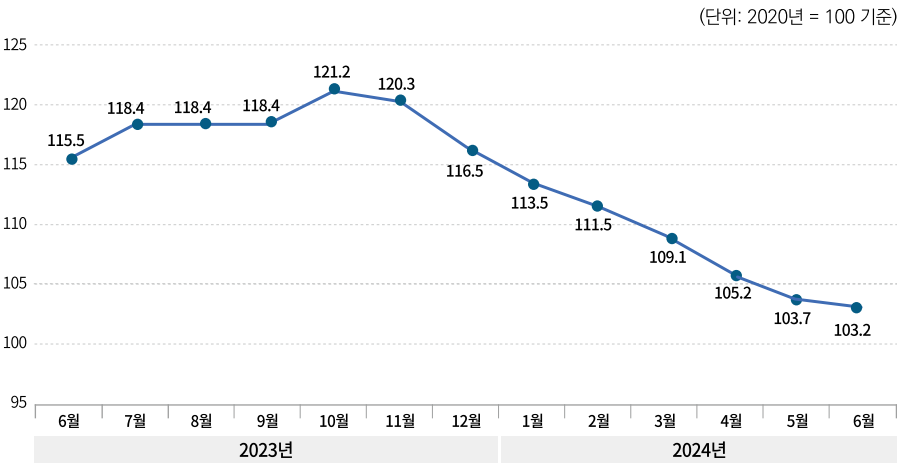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6월 생산자물가지수 103.2p 기록, '23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24년 6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함
- '22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5.5	118.4	118.4	118.4	121.2	120.3	116.5	113.5	111.5	109.1	105.2	103.7	103.2	-0.4	-10.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7.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지역 골재 가격 1년 새 38% 급등... 건설현장 수급난³⁶⁾

- 환경 규제로 인해 모래 채취량이 감소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골재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음
 - 잔골재(모래) 가격이 1년 새 38% 급등하여 건설현장에서 ‘골재 대란’이 우려되고 있음
 -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함평군의 모래 채취량이 자연훼손과 민원 등의 이유로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모래 가격은 7월 기준 m^3 당 2만 2,500원으로, 2020년 대비 42.41% 상승했음
 - 올해 상반기에도 세 차례 가격이 인상되며 레미콘 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역 내 모래 채취량이 감소하면서 레미콘 업체는 원거리 타 지역에서 모래를 공급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추가 운반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역 역시 모래 채취량이 부족해 물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남원 지역의 모래 가격도 7월 기준 m^3 당 2만 9,000원으로 계속 상승 중임
-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민원 문제로 인해 정부 인허가는 필요하지만 골재 채취 목표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면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지적함
 - 이에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에 골재 채취 인허가 관련 수급 현황 및 탄원서를 제출함
 -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골재수급대책 연구용역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 대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전남일보(2024.07.21.), <https://www.jnilbo.com/74278963889>(2024.07.22.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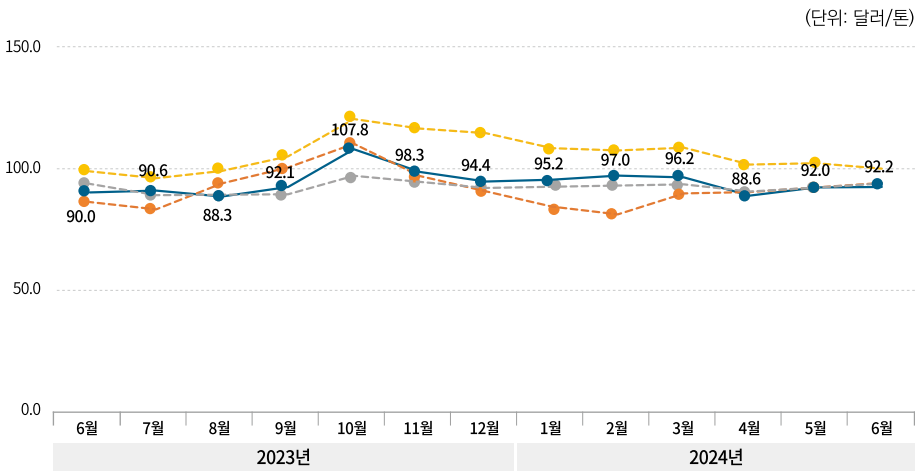
1 '24년 6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6월 평균가는 톤당 92.2달러로 전월 대비 0.3% 증가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유연탄 가격이 각각 1.6%, 1.3% 증가하였으나, 중국 남부 유연탄 가격은 2.3%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0.0	90.6	88.3	92.1	107.8	98.3	94.4	95.2	97.0	96.2	88.6	92.0	92.2	0.3	2.5
리차드베이	86.0	83.1	93.6	100.2	110.1	96.7	89.7	84.1	81.0	89.6	90.1	92.4	93.9	1.6	9.2
칼리만탄	93.5	88.7	88.5	89.2	96.9	94.5	91.9	92.6	92.7	93.3	90.4	92.4	93.7	1.3	0.2
중국남부	98.6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08.1	107.2	108.4	101.5	102.0	99.7	-2.3	1.2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7.24. 검색)

2 '24년 2분기 석탄 발전 거래량 급감³⁷⁾

- 📍 지난 7월 15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24년 2분기 석탄 발전 거래량은 3만 2,690GWh로 '06년 2분기(3만 836GWh) 이후 가장 적음
- 한전에 따르면, 석탄 화력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는 '24년 초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5월 기준 1만 GWh를 밑돌기도 함
 - 이는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을 필요 최소한만 가동한다는 방침이 석탄 발전 감소로 이어졌으며, 노후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LNG는 연료 단가가 석탄보다 비싸기 때문에 LNG 발전으로 전환될수록 한전의 도매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 특히 제어가 쉬운 발전원인 석탄은 봄철 수급 불균형 때 우선 출력제어 대상이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석탄 발전은 감소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7) 연합뉴스(2024.07.1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7074>(2024.07.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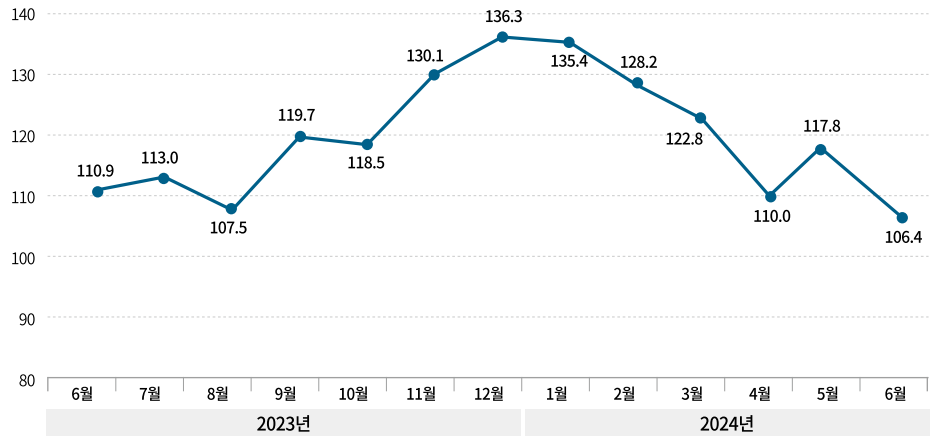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6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한 106.4달러 기록

- '24년 6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106.4달러로 전월 대비 9.7%,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함
- 중국 내수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라 5월 증가세를 기록했던 철광석 가격은 계절적 영향 및 중국 철강 생산 통제 지속 등에 따라 감소세로 다시 전환되었으며 지난 12개월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함
- 여전히 중국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135.4	128.2	122.8	110.0	117.8	106.4	-9.7	-4.0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7.19. 검색)

②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중국 철광석 수입량 증가³⁸⁾

-  중국의 '24년 상반기 철광석 수입량은 6억 1,12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함
 -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 증가는 중국 내 철강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철강업체의 재고 확보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 항만의 철광석 재고는 '23년 12월 말 3,570만 톤 증가하여 '24년 7월 12일 기준 1억 5,020만 톤에 도달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철강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철강업체들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자 재고를 축적하고 있으며, 실제 상반기 중국의 철강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한 5억 3,057만 톤을 기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③ 철광석 메이저 광산업체 '24년 2분기 생산실적 발표

-  글로벌 철광석 메이저 광산업체인 BHP, Vale, Rio Tinto사의 '24년 2분기 철광석 생산량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함
 - BHP 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억 5,970만 톤을 기록하면서 자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연간 3억 500만 톤 생산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라 밝힘³⁹⁾
 - Vale사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060만 톤을 기록하면서 '24년 3억 1,000만 톤~3억 2,000만 톤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⁴⁰⁾
 - Rio Tinto사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7,950만 톤을 기록하면서 '24년 생산량을 3억 2,000만 톤 ~ 3억 3,800만 톤으로 예측함⁴¹⁾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8) GMK CENTER(2024.07.18.), [https://gmkc.center/en/news/dynamics-of-iron-ore-imports-to-china-are-dictated-by-prices/\(2024.07.19. 검색\)](https://gmkc.center/en/news/dynamics-of-iron-ore-imports-to-china-are-dictated-by-prices/(2024.07.19. 검색))

39) GMK CENTER(2024.07.17.), [https://gmkc.center/en/news/vale-increased-iron-ore-production-by-2-4-y-y-in-q2/\(2024.07.19. 검색\)](https://gmkc.center/en/news/vale-increased-iron-ore-production-by-2-4-y-y-in-q2/(2024.07.19. 검색))

40) GMK CENTER(2024.07.17.), [https://gmkc.center/en/news/vale-increased-iron-ore-production-by-2-4-y-y-in-q2/\(2024.07.19. 검색\)](https://gmkc.center/en/news/vale-increased-iron-ore-production-by-2-4-y-y-in-q2/(2024.07.19. 검색))

41) GMK CENTER(2024.07.16.), [https://gmkc.center/en/news/rio-tinto-increased-iron-ore-production-by-2-q-q-in-q2/\(2024.07.19. 검색\)](https://gmkc.center/en/news/rio-tinto-increased-iron-ore-production-by-2-q-q-in-q2/(2024.07.19.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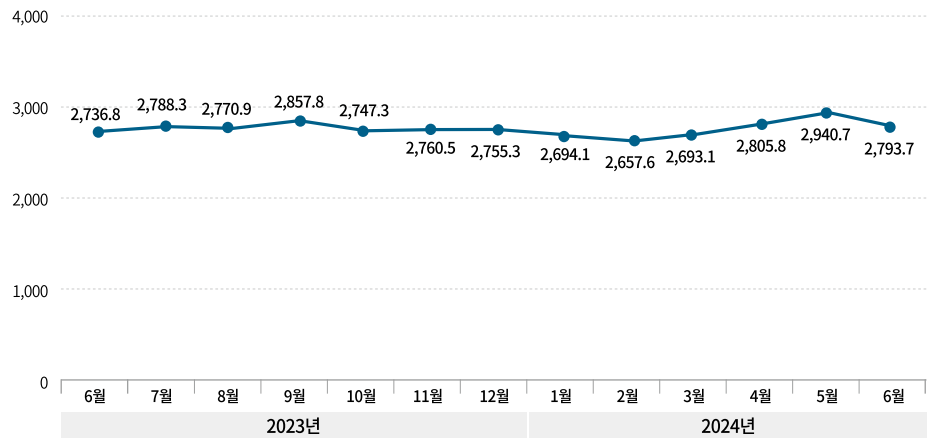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1 6월 광물종합지수는 2,793.7p로 전월 대비 5.0% 감소

’24년 6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736.8p) 대비 2.1% 증가한 2,793.7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5.0	2.1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7.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2차전지 핵심광물인 리튬, 국내 매장 확인⁴²⁾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7월 11일 국내 울진과 단양에서 리튬의 매장이 확인됐다고 밝힘

- 지질자원연구원은 '20년부터 4년간 국내 리튬 유망 광상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야외 지질조사를 진행하였음
- 리튬은 울진 보암광산에서 북서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신규 광체 2곳의 리튬 품위를 분석한 결과 0.3~1.5%로 나타났으며, 단양광체의 품위는 0.01~0.5%로 조사됨
- 품위는 광물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함량을 의미하며, 리튬 품위가 1%라면 10kg짜리 돌에 0.1kg의 리튬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리튬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경우 리튬 개발을 위한 최저 품위 기준을 0.2%로 하고 있어 단양 광산의 경우 최저 품위가 개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상업적인 이익을 당장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실제 개발을 위해서도 지하 300m까지 시추공을 뚫어 실제 리튬 광체를 확인해야 하나, 리튬 매장지 위에 보호 대상 소나무인 금강송 군락지가 발달해 있어 매장량을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2) 경향신문(2024.07.11.), <https://www.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407111400001>(2024.07.22. 검색)

8) 목재

1 자원순환을 위해 국내 폐목재 연간 400만 톤 활용 계획⁴³⁾

- ❖ **물질재활용업계와 에너지재활용업계가 협력하여 폐목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 협약을 체결함**
 - 국내 폐목재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물질재활용업계와 에너지재활용업계가 연간 약 400만 톤 규모의 폐목재 자원순환을 목표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이들은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식에는 동화기업, 성창보드, 한솔홈데코 등 물질재활용기업과 지에스이피에스,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 포승그린파워 등 에너지재활용기업이 참여함
- ❖ **현재 폐목재 시장은 유통과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확한 수요 분석이 어려움. 물질재활용업계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 이후 폐목재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에너지재활용업계는 사업성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업계는 약 8개월간 논의를 거쳐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함
-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목재는 에너지 회수 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임**
 -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분류 기준' 개선에 대한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상생 협의체를 운영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3) 전기신문(2023.07.03.),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76>(2024.07.08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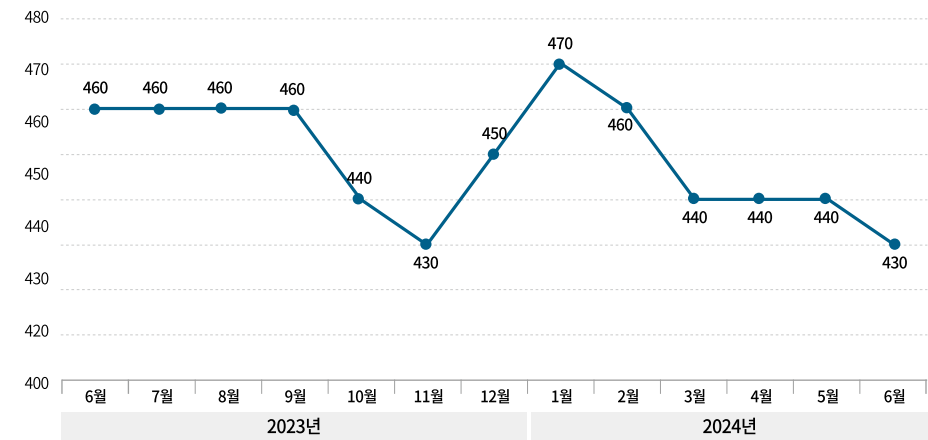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소폭 하락

- 국내 6월 생철 가격은 톤당 43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5%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까지 2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고철 가격은 '24년 2월부터 다시 하락하였고, 3월부터는 톤당 44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6월 재하락함

(단위: 천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60	460	460	460	440	430	450	470	460	440	440	440	430	-2.3	-6.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7.24.),<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7.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고철, 올해 상반기 수입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감소⁴⁴⁾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로 봉형강 수요가 대폭 감소하며, 올해 1~6월 고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1% 감소한 112만 4천 톤을 기록함

- 6월 고철 수입은 17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5% 감소했으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13만 4천 톤) 대비 26.8% 증가함
- 상반기 국가별 누적 수입은 일본산이 81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감소했으며, 러시아산(12만 1천 톤)과 미국산(7만 2천 톤) 또한 각각 33.0%, 67.3% 감소함
- 3분기도 본격적인 비수기 진입과 함께 저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약 150만 톤 감소한 225만 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4) 철강금속신문(2024.07.10.),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7/10/PS010710010100301B0001.pdf>(2024.07.17.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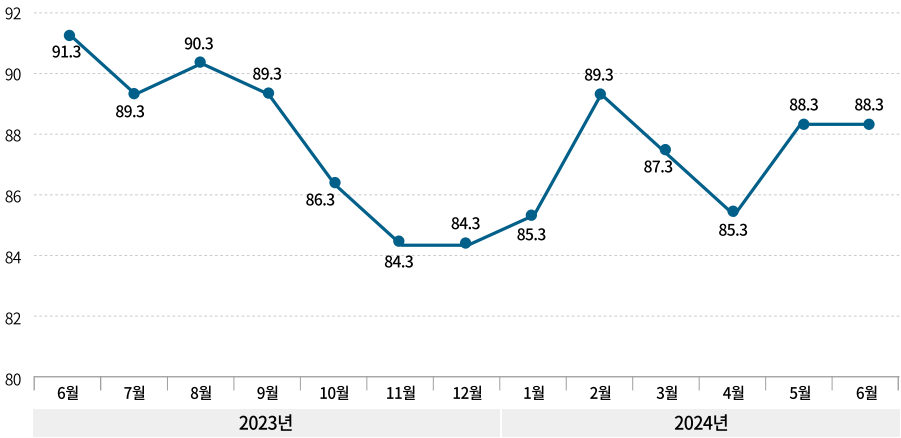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보합세

- 6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88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91만 3천 원) 대비 3.3%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에 급격히 하락하여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91.3	89.3	90.3	89.3	86.3	84.3	84.3	85.3	89.3	87.3	85.3	88.3	88.3	0.0	-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7.24.),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7.24.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7.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중국산 후판, 상반기 수입 8년 만에 최대⁴⁵⁾

올해 조선 등 전방산업 업황 개선으로 국산 후판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극심한 내수 부진 영향으로 실제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당초 철강업계는 올해 국산 후판 수요가 조선산업 업황 개선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철강금속신문이 조사한 국내 후판 제조 3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올해 상반기 후판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420만 7천 톤이며, 상반기 국산 후판 내수 판매는 287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호황과 견조한 수주 잔량에도, 중국산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후판 매입량이 증가하며 국산 후판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상반기 후판 수입은 119만 2천 톤으로, 2016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수입량(119만 5천 톤)과 유사한 실적을 기록함
- 상대적으로 비싼 일본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한 37만 3천 톤을 기록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77만 5천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6년 93만 톤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임
- 국내 철강업계는 부진한 내수 시황 만회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국산 후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135만 3천 톤을 기록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5) 철강금속신문(2024.07.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7/15/PS010715010100101A0001.pdf>(2024.07.17. 검색)

11) 자동차



1 '24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전월 대비 내수 소폭 증가, 생산 및 수출 감소⁴⁶⁾

- 5월 내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를 기록함
 -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신차 구매 의향 감소, 전기차 판매 저조, 전년 동월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14만 1,313대를 기록함
- 5월 수출·생산은 전월 대비 각각 5.6%, 5.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 증가, 2.4% 감소함
 - 수출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시장으로의 견조한 수요와 국산 하이브리드차, SUV 수출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255,594대를 기록함
 - 생산은 내수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372,814대를 기록함

단위 : 대, 백만 \$, %

'24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5월	1~5월	4월	5월	1~5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52,190	731,038	141,110	141,313	660,651	0.1	-7.1	-9.6
(국산차)	1,451,663	130,460	625,260	118,969	115,095	557,694	-3.3	-11.8	-10.8
(수입차)	287,586	21,730	105,778	22,141	26,218	102,957	18.4	20.7	-2.7
수출	2,766,271	247,406	1,181,093	270,635	255,594	1,214,836	-5.6	3.3	2.9
(완성차 수출액)	70,864	6,194	29,420	6,788	6,489	30,809	-4.4	4.8	4.7
(부품 수출액)	22,954	1,939	9,637	1,960	1,836	9,562	-6.3	-5.3	-0.8
생산	4,243,597	382,122	1,827,403	394,458	372,814	1,791,715	-5.5	-2.4	-2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6.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9&menunum=0004#\(2024.07.22.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9&menunum=0004#(2024.07.22.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6.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9&menunum=0004#\(2024.07.22.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9&menunum=0004#(2024.07.22. 검색))

2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 및 수출단가 역대 최고 기록⁴⁷⁾⁴⁸⁾

-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370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최고 기록을 넘어선 실적임
 - 상반기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23년 35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지난 최고 기록이었던 '14년 252억 3천만 달러 넘어선 바 있음
 - 친환경차와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최대 시장인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올해는 3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기존 기록을 넘는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동차 1대당 수출 단가는 2만 5,224달러(약 3,470만 원)로 역대 최고 단가를 기록함
 - '20년 상반기에 자동차 수출단가가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1년 상반기 2만2,354달러, '22년 상반기 2만 2,681달러, '23년 상반기 2만 5,079달러로 꾸준히 상승함
 - 수출단가는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해외에서 얼마나 제값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산 자동차의 제품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
 -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차종인 전기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와 상용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단가가 오른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SBS(2024.07.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13596&plink=ORI&cooper=NAVER(2024.07.22. 검색)

48) 세계일보(2024.07.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14509333?OutUrl=naver>(2024.07.22. 검색)

3 캐스퍼 전기차 양산·수출 예정⁴⁹⁾

광주글로벌모터스는 6월 15일 본사 조립공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생산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들어감

- '21년 9월 15일 캐스퍼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2년 10개월 만에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함
- 캐스퍼 EV는 개성 있는 디자인, 약 315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넓은 실내공간, 고급차 수준의 안전편의 사양 등의 장점을 갖추고 2,000만 원대 초·중반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기존 올해 계획인 1만 7,400대보다 25% 이상 늘어난 2만 1,400대의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고, 세계 주요 50여 개 나라로 수출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뉴스1(2024.07.15.),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479547>(2024.07.22.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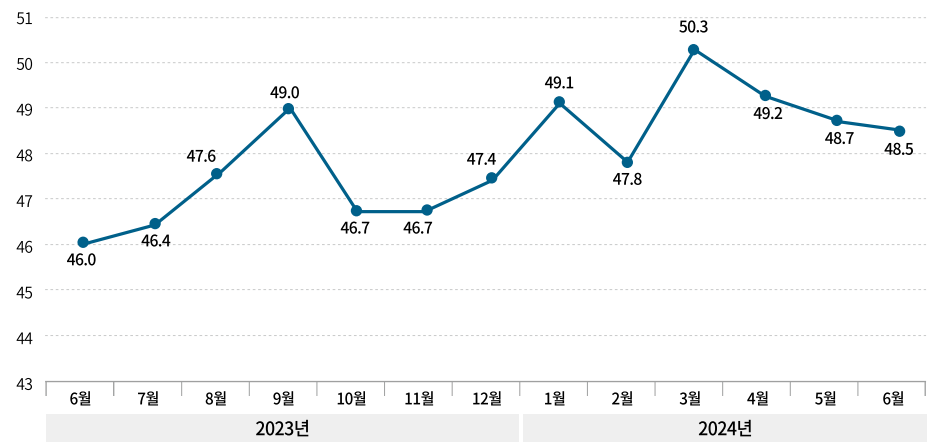
12) 잡화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8.5p 기록 발표⁵⁰⁾

- ▶ 지난 5월 수치인 48.7p보다 소폭 하락하며 경기 위축세 지속,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며 '24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생산(50.2p→48.5p)과 고용(51.1p→49.3p)은 전월 대비 위축되었으나 신규 주문은(45.4p→49.3p)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자료: Trading Economics(2024.07.01.),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50) Trading Economics(2024.07.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7.19. 검색)

② '24년 상반기 수출액 및 무역수지 호조⁵¹⁾

▶ '24년 상반기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도 231억 달러 흑자로 '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함

-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 품목과 선박·자동차 등 수송기계류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소재품목 수출이 고르게 증가함
- 특히 선박 수출은 '23년부터 이어온 호조세가 '24년 상반기(118억 달러, +28.0%)에도 지속됨
- 일반 기계 수출액의 경우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7% 감소한 262억 달러를 기록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51) KDI 경제정책정보(2024.07.01.),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3583>(2024.07.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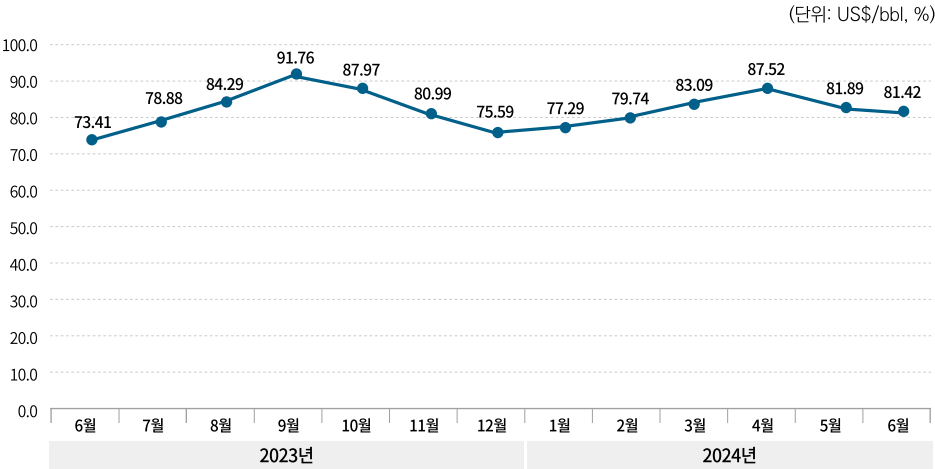
13) 유류



국제 원유 가격 추이

1 '24년 6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감소

- ’24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제유가는 4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7월 평균 유가는 81.42달러를 기록함
- 지속되는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에도 수요 부진으로 유가가 크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감산 기조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팔 전쟁,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24.04.01), 이란의 보복공격(’24.04.13), 이란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24.05.19)·사망 사건 등 중동 정세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어 유동적인 시장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4.99	80.45	86.46	93.25	89.75	83.55	77.33	78.85	80.88	84.18	89.17	84.04	82.56	-1.8	10.1
Brent	74.98	80.16	85.10	92.59	88.70	82.03	77.32	79.15	81.72	84.67	89.00	83.00	83.00	0.0	10.7
WTI	70.27	76.03	81.32	89.43	85.47	77.38	72.12	73.86	76.61	80.41	84.39	78.62	78.70	0.1	12.0
평균	73.41	78.88	84.29	91.76	87.97	80.99	75.59	77.29	79.74	83.09	87.52	81.89	81.42	-0.6	10.9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7.19. 검색)

2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러시아산 LNG에 제재 방안 채택⁵²⁾

- EU는 6월 24일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채택한 지 거의 2년 만에 사상 최초로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채택함
 - 러시아 LNG가 EU 회원국 항만에서 제3국으로 역외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Ship To Ship(선박 간의 환적)과 Re-Load(하역 후 재선적)를 제한함
 - 또한, 러시아가 추진 중인 LNG 프로젝트(Artic LNG 2 등)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설비가 아닌 미래에 운영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유럽 기업들의 기술이전, 재화·용역의 수출 등 직·간접적인 투자를 금지함
- 다만,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그동안의 발표와는 다르게 LNG 수입을 지속하는 등의 실리를 추구하는 선택을 함
 - EU가 러시아산 석유·석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것과는 상반되게 천연가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번 제재도 러시아 LNG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LNG 수출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그침
 - 오히려 환적이 어려워지면서 쇄빙선을 이용해야 하는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생산 LNG의 단거리 수출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산 LNG는 단거리 항로인 유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올해로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이 끝날 수 있어 러시아 LNG까지 수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한 것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6.2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7.22. 검색)

3 중국의 경기침체, 석유 수요 둔화요인 작용 전망⁵³⁾

중국 정부는 '23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제의 강력한 경기 반등을 기대했으나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恒大그룹의 부도('21년)로 시작된 부동산 위기와 제조업 경기 위축 등 부동산, 부채, 실업 등 3중고를 겪으며 중국 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임
-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회복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중국의 경기침체로 석유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OPEC은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4%(72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정유사들은 내수 약화로 정제처리량을 줄이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기침체 외에도 전기차 보급률 증가로 '25년부터 중국 휘발유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석유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7.09),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7.22.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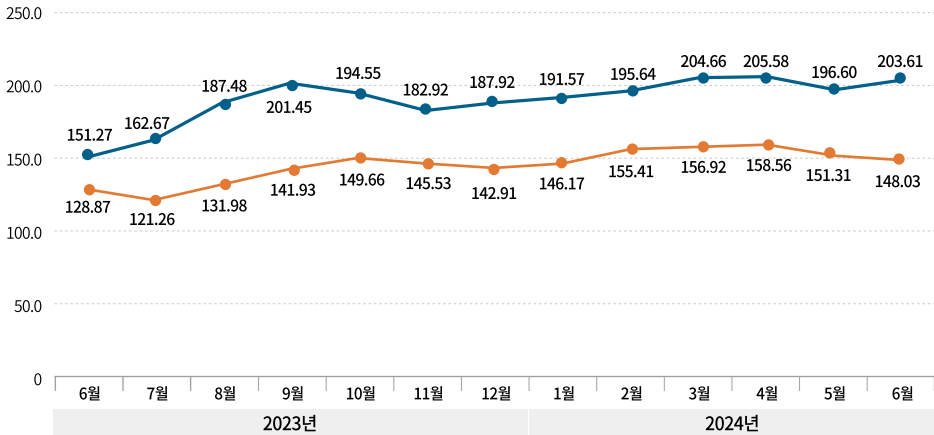
1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상승·에틸렌 하락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반등한 반면,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하락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3.6%, 전년 동월 대비 34.6% 상승한 203.61p를 기록함
-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4.9% 상승한 148.03p를 기록함
-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반등, 에틸렌은 감소가 이어지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나프타가 에틸렌 대비 선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7월에 에틸렌 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나프타
에틸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51.27	162.67	187.48	201.45	194.55	182.92	187.92	191.57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3.6	34.6
에틸렌	128.87	121.26	131.98	141.93	149.66	145.53	142.91	146.17	155.41	156.92	158.56	151.31	148.03	-2.2	14.9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7.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7.24.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석유화학업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⁵⁴⁾

📌 '22년 이후 지속된 석유화학 업황의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지난 5월 우드 매킨지(Wood Mackenzie)는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에틸렌 자급률 증가와 동아시아 생산능력의 조정으로 에틸렌 마진이 '27년까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다만, '23년 말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2년 전 대비 35%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13% 증가하는 등 나프타 조달 어려움과 수익성 부진으로 가동률이 70~75%에 머물면서 에틸렌 생산량이 생산능력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함
- 또한, 중국의 이구환신(신제품 교체) 정책으로 내구재 수요가 증가하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업계는 2분기 흑자전환에 이어 3분기에도 스프레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케이조선, 석유화학제품운반선 6척 수주⁵⁵⁾

📌 최근 케이조선은 아시아 소재 선사 2곳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운반선 5만 톤급 2척과 7만 5천 톤급 4척 등 총 6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

- 6척 수주에 따른 계약금액은 총 5,400억 원 규모이며, 건조될 선박들은 향후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 전환이 가능하도록 건조되는 등 미래 친환경 조건을 만족함
- 신규 선박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3단계 지수를 만족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이데일리(2024.07.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5606638951240&mediaCodeNo=257&OutLnkChk=Y>(2024.07.22. 검색)

55) 연합뉴스(2024.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65000052?input=1195m>(2024.07.22.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7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